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 여론조사 박지원 의원 '1위'

박, '40-50대·진보·호남권' 지지세 뚜렷
조정식·김태년 順...전화면접·ARS 진행
청년층·무당층 '적합한 인물 없음' 응답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위 후보와 큰 격차를 벌리며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권과 40-50대 연령층, 그리고 진보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화면접조사 기준 박 의원은 23.4%의 지지

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조정식 의원 (5.7%)과의 격차는 17.7%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김태년 의원이 3.0%, '그 외 다른 인물'이 2.6%를 기록했으며 '적합한 인물 없음'이라는 유보적 응답은 43.4%로 집계됐다.

도 20%대의 고른 지지율을 유지했다. 반면,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10%대 지지율에 머물렀다. 대구·경북에서는 조 의원이 10.4%로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연령별로는 박 의원이 50대 (35.8%)와 40대 (33.4%)에서 강세를 보였고 60대 (29.8%)에서도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18-29세 청년층과 30대에서는 '적합한 인물 없음'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차기 의장 인선에 대한 청년층의 무관심 또는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29.5%)이 여성 (17.4%)보다 박 의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ARS조사도 28.1% 선두...50대男 과반 같은 기간 진행된 ARS(자동응답) 조사 결과 역시 전화면접조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A

RS 조사에서 박 의원은 28.1%를 기록해 역시 선두를 지켰으며, 2위 조 의원 (8.2%)과의 격차는 19.9%p로 다소 더 벌어졌다. 김 의원은 3.1%, '적합한 인물 없음'은 25.4%였다.

특히 ARS 조사에서는 50대 남성 계층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56.1%에 달해 압도적인 지지세를 입증했다. 권역별로는 호남 (44.3%)에서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으며, 충청과 수도권에서도 20%대 중후반의 안정적인 기록을 세웠다.

◇진보·민주 지지층 '박지원' 선호 ↑ 정당 지지층과 이념 성향별 양극화도 뚜렷했다. 전화면접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38.5%가 박 의원을 꼽았으며 (ARS 45.9%), 진보층에서는 47.3%가 박 의원을 지지했다 (ARS 46.9%).

한 인물 없음'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화면접 기준 국민의힘 지지층의 72.2%, 보수층의 60.5%가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답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에서도 '적합한 인물 없음' (45.9%)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인물 중에서는 박 의원 (2.5%)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화면접조사 (CATI)는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1천3명 (응답률 12.0%)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ARS 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을 통해 1천10명 (응답률 2.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수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헌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전남도당·경남도당 地選 승리 협약

김원이 위원장, 김경수 후보 캠프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6일 경남도당을 방문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당은 협약을 통해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엄중히 인식하고 영호남 갈등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며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통해 책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 이후 김원이 위원장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를 방문해 지지와 응원의 뜻을 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두 사람은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향후 선거 과정에서도 사·도 간 협력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앞서 전남도당은 지난 22일 대구시장 및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경남 방문을 계기로 영남권 전반으로 협력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권향엽, '국가폭력 가해자 서훈 취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27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

적 제기돼 왔다. 특히 남영동 대공본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유지가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훈 취소 기준을 바로 세워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정의 강은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노동권 보장...차별 없는 노동특별시"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27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일 자리를 확대해 온전한 자립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 없는 통합특별시, 모든 시민이 특별한 노동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지난 3년 간 장애인의 경제적 자



립 기반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역행해 빈곤율이 치솟았다"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은 전체 국민 고용 지표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예외 조항이 균간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을 '노동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은진기자

그러면서 강 후보는 "권리 중심 공공일 자리는 장애인 스스로 노동을 통해 당당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전남광주형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장애인 분야 공약으로 '모두의 노동기금'을 통해 전남광주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전폭 지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을 제시했다. /변은진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